

학습 기계. 빌 게이츠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라이너 지텔만 / 2025-09-19

이번 10월에 70세가 될 빌 게이츠(Bill Gates)가 최근 자기 어린 시절과 형성기를 탐구하는 자서전[《소스 코드: 나의 어린 시절 (Source Code: My Beginnings)》, 펭귄 북스(Penguin Books), 2025년, 336페이지]을 발매했다. 책의 주제들은 학습, 반항, 야망, 그리고 경쟁력을 포함한다. 그가 자세히 얘기하는 형성 경험 중 하나는 카드놀이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할머니의 기술들을 결국 능가하는 데 그가 체계적인 연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이다: “카드놀이는 어떤 것이 얼마나 복잡하거나 심지어 신비하기조차 한 것 같을지 상관없이 당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나에게 가르쳤다. 세계는 이해될 수 있다.”

그 책은 또한 자기 아이들의 지적 성장을 촉진하고 그들의 재능들을 육성하기를 기대하는 어떤 부모들에 대해서든 귀중한 안내를 제공하기도 한다. 어릴 때, 게이츠의 가족이 여행을 갔을 때는 언제든지, 빌 게이츠는 자기 엄마가 자기 여행제와 자기가 써넣을 여행 일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설명한다. 그들은 하루에 두 페이지를 써서 자기들이 본 것을 기록해야 했는데, 일곱 범주로 조직되었다: 1 지형들, 2 날씨, 3 인구 분포, 4 토지 사용, 5 산물, 6 역사적 혹은 그 밖의 흥미로운 명승지, 7 기타.

그의 엄마가 운전하고 있는 동안, 빌 게이츠의 할머니는 두 아이에게 맨 오 워(Man o' War),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속도 및 인내 기록을 깨었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경주마 중 하나였던 순종의 말에 관해 읽어주시곤 했다. “이윽고 아무래도,” 게이츠는 쓴다, “나의 엄마도 자기 아이들에 대해 비슷한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릴 때부터, 게이츠는 광범위한 주제에 열중하는 열렬한 독서가였다. 그리고 그가 지식을 더 많이 흡수할수록, 그는 질문을 더 많이 지녔다. 내가 그의 자서전을 읽고 있었을 때, 나는 넷플릭스(Netflix) 기록영화 하나가 생각났는데, 거기서 그는 휴가 때 그와 그의 아내가 어떻게 종종 새로운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관해 수십 권 책을 읽으며, 그다음 자기들이 배운 것을 토론하곤 했는지 이야기했다. 명백히, 이 지적 탐사는 그의 어린 시절의 특징이었는데, 그때 그는 종종 침대에 누워, 절대로 심지어 고려하기조차 할 아이들이 아주 거의 없을 것들을 곰곰 생각하곤 했다: “나는 끝없이 어떤 질문을 통해 서서히 나아가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동차 내연 기관이 회전 속도가 바뀌는 것, 나뭇잎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것, 내 위 마루에서 발소리들을 듣고, 이 소리들이 어떻게 내 귀에 도달했을까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 같은 수수께끼들은 몇 시간 동안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해답들을 책들에서 찾았고 그의 새 지식을 그 주제에 관한 학교용 과학 논문으로 바꾸었다: “소리란 무엇인가? (What is Sound?)”

7학년 때, 그의 학급 학생 각각이 50개 미국 주 중 하나의 프로필을 소개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게이츠는 덜 매력적인 한 주, 델라웨어를 선택했다. 그는 델라웨어에 여행과 역사에 관한 소책자들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고, 기사들을 발췌했으며, 그 주의 회사들에 접촉하여 그것들의 연례 보고서들을 요청했다. 그가 나가떨어졌을 때까지는, 그는 작은 델라웨어에 관해 177페이지를 썼었고 심지어 자기가 제작한 책에 대해 나무 표지도 만들었다.

게이츠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했고 자신에게 물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20퍼센트 더 나은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헌신적인 노력—당신이 어제 했던 것보다 오늘 더 잘 수행하는 것에 관해 가차 없이 집중하고 의도적인 것, 그런 다음 그것을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수년간 그다음 날 반복하는 것—과 대비하여 그 그저 잠재적 재능만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게이츠는—바로 그것을 하는 데 전념함으로써—찾아낼 셈이었다.

한편, 게이츠는 매우 집중적이었다. 다른 한편, 그의 관심들은 극히 다양했다. 그는 하버드에서 응용 수학을 전공하는 자기 결정을 수학이 그 대학교가 제공한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필수적이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설명한다. 이것은 그에게 그가 실제로 탐구하기를 원했던 것을 탐구할 자유를 주었다. 응용 수학은 그에게 모든 종류의 흥미로운 강좌들을 수강할 수 있게 하는 “만능패(wild card)”였다. “나의 하버드 시절에, 나는 언어학, 형사 사법, 경제학, 그리고 심지어 영국 역사에서도 수업들을 정당화하는 데 반복적으로 이 만능패를 내놓곤 했다. 그것은 정보 탐식가에 대해 완벽한 전공이었다.”

빌 게이츠는 지식에 대한 그러한 갈증과 아주 많은 주제에 대한 예민한 관심을 지니고 있어서,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후조차도, 그는 자기의 학문적 연구를 즉각 포기하지는 않았다—이것은, 그가 회고하여 인정하듯이, 아마도 더 나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는 두 길을 따라가서, 자기 연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가치가 큰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가 될 것을 쌓아 올리는 요구 사항과 균형을 잡았다. 그러나 심지어 그가 자기 연구를 끝낸 후조차도, 그는 방해받지 않고 책들, 기사들 그리고 논문들을 탐구하는 데 여전히 매년 시간을—전형적으로 온 일주일, 매년 한 번이나 두 번—바쳤고, 자신에게 온갖 종류의 주제들에 관해 정기적인 집중 강좌들을 주었다.

게이츠는 얌전한 아이가 아니었다—그가 반복해서 자세히 얘기하듯이, 그는 학교와 집 양쪽 다에서 반항아였고 자주 막강한 권위자들과 충돌했다. 나의 책 두 권, 《부를 끌어당기는 행동 습관(Dare to Be Different and Grow Rich)》과 《부의 해부학(The Wealth Elite)》에서, 나는 예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을 분석하고 이것이 대부분 높은 성취자에게 진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나는 그들이 생애 나중에 그렇게 성공하게 되는 데 필요할 힘과 적극성을 그들이 개발할 수 있게 한 것이 선생님들 및 부모님들과의 이런 격심한 갈등들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게이츠에 관해 말하면, 갈등들은 그의 부모님들이 마침내 그를 치료에 보내는 지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그의 임상 의사는 그저 그에게 확신시켰을 뿐이다: “자네가 이길 거야.”

게이츠는 자기가 자기 주위 대부분 사람보다 더 영리하다는 점을 곧 깨달았다. 그는 또한 매우 강한 경쟁적 충동을 지니고도 있었고 자기의 우월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개발되지 않은 IQ와 경쟁적 경향을 지니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었던 무슨 게임이든 이기는 것 외 다른 목적을 거의 지니고 있지 않은 열세 살 아이”로 언급한다. 그가 자기 야망과 경쟁적 정신을 돌릴 수 있을 특정 목표들을 그가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오직 생애 후기에서만이었다.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것 같은, 좌절들과 비극들에 직면하여, 그는 자기가 어릴 때 개발했었던, 장래를 고려하는 사고방식으로부터 편익을 얻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과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나은 어떤 것이 앞에 놓여 있다는 기대를 지니고 항상 앞쪽을 보았다.” 그것은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두 빌 게이츠 자서전의 더 많은 1회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미 발표되었다.

원문은 <https://www.cityam.com/the-learning-machine-how-did-bill-gates-become-so-successful/>에서 읽을 수 있다. 라이너 지텔만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를 끌어당기는 행동 습관(Dare to Be Different and Grow Rich: The Secrets of Self-Made People)》 (▶ 링크)과 《부의 해부학(The Wealth Elite: A Groundbreaking Study of the Psychology of the Super-Rich)》 (▶ 링크)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